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China's Yangzijiang Shipbuilding gears up for VLCC debut

중국의 Yangzijiang Shipbuilding Group이 VLCC건조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Yangzijiang은 같은 계열사인 Jinhai Intelligent Manufacturing이 반 정도 건조한 300,000DWT급 유조선을 구매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보도됨. 3년 전 Suezmax 급 탱커 건조시장에 진입하기 전과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DNV GL: Shipowners should opt for dual-fuel engines in decarbonisation drive

노르웨이 선급(DNV-GL)에 따르면, 향후 십여년간의 선박유 시장은 oil-based 연료가 지배하겠지만 탈탄소화(decarbonisation) 드라이브를 위해 선주들은 이중연료추진시스템을 채택해야만 한다고 보도됨. 노르웨이선급의 대표는 "Gas는 decarbonisation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며 미래를 위한 훨씬 좋은 연료(even better fuel)"라고 밝힘. (TradeWinds)

## EU's inclusion of gas in Just Transition Fund scheme is a positive step

가스 프로젝트가 약 1조유로 규모 JTF(Just Transition Fund)의 지원을 받는 것을 허용한 유럽 의회의 결정이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보도됨. COVID-19 발발 후 경기 부양책으로 마련된 예산 또한 JTF 구성에 약 175억유로여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Shell to fuel Microsoft with renewable power in net-zero 'alliance' deal

프랑스의 슈퍼메이저 Shell사가 Microsoft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동력을 지원하여 2025년까지 IT giant의 100% 친환경 에너지 활용 목표 달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보도됨. 두 회사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두 회사 뿐 아니라 고객들의 탄소 배출량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두산중공업, 한전·발전5개사와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 '맞손'

두산중공업은 23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 엔알텍 등 소재부품 협력사 5곳과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협약에 따라 두산중공업과 전력공기업, 가스터빈 산업계는 LNG 복합발전 구축과 실증, 국내 가스터빈 산업 추진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 중국의 해운 조선업 지극한 우애

2020년 현재까지 중국 조선업체가 수주한 신조선 10척 중 6척이 자국 선주의 발주물량이라고 보도됨. 중국은 자국의 수출입물량은 자국선으로 수송한다는 국수국조 전략을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